

보웬이론으로 본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김은미 (횡설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황혜숙 (횡설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용태 (횡설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논문요약

본 논문은 보웬가족치료 이론과 성경 속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실재를 통합하는 연구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적 개입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변화를 보웬가족치료 이론의 치료적 개입 및 자기분화개념 중심으로 기술하고, 그 결과가 기독교 상담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이 가진 만성적 불안으로 인해서 “자손과 땅”에 융해되어 있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 부부 사이에 제 삼자, 하갈을 끌어들이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융해관계로 인한 그들의 불안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어떻게 지배했는지를 보여준다. 셋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기분화 수준은 하나님과의 치료적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되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확신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표지향적 활동을 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기독교상담에 주는 시사점은 하나님이 영적 개입을 하실 때 우리의 심리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실 뿐 아니라 각 개인의 분화수준에 따라 그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여정으로 인도하심이다.

I. 서론

아브라함 이야기는 구약성경의 원역사와 족장사를 이어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이사야, 2010:113). 창세기 12장에서 25장에 걸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을 통해 소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보여준다(Maclaren et al., 1991a:서문). 여러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여기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이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에 따라 우리에게까지 미친 구속사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김진규, 2012; 조병수, 2007).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적 연구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대명사가 되었고,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맺으신 언약과 관련하여 해석한다(양신혜, 2012; 김재규, 2009). 이러한 아브라함 인물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성화과정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확신을 줌에 충분하다.

보웬가족치료 이론의 자기분화 정도와 영적 성숙도, 자아 존중감, 그리고 용서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허재호, 2011; Holeman et. al., 2011; Majerus and Sandage, 2010)는 실제 보웬가족치료 접근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말한

다. 그리고 보웬가족치료 이론을 기독교 가족상담과 목회상담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도 있다(이미정, 2002; 이기훈, 2003; Matthews, 2005). 물론 “기독교상담자들도 성경의 가족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성경본문에 일관되게 존속하는 코드, 즉 신학을¹⁾ 찾아내어 의미를 부여해야 함은 매우 중요하다(최은영, 2012:189).”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한 신학적 해석만으로는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신앙의 귀감이 되어 가는 여정에 불안이 어떤 심리적 부적응과 불신앙의 모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불신앙의 모습이 변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와 관련된 삶의 실제들을 간과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아브라함의 변화를 보웬가족치료 이론으로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실제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몇 연구들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 대한 상담학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그들 삶의 실제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으나(김명현, 2011; 서우경, 2011; 이관직, 2012)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의 품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정석규, 2012) 외에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리적 변화와 그들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해석하기 위해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을 틀로 채용한다. 보웬가족치료 이론의 삼각관계 개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불임으로 인해 하갈을 끌어들이므로 자신의 불안을 낮추려고 형성하는 삼각관계와 이에 대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형성되는 또 다른 유형의 삼각관계를 잘 설명해준다. 또한 자기분화 개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주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한 불신앙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매우 적절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을 재연하고 확충하는(Campbell, 1994:38)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자기분화 수준의 변화를 찾아보고, 이 변화를 상담학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통합적 방법이다. 이 연구는 통합 방식 중에서 주어진 학문 내에서 이론과 실제의 통합을 의미하는 학문 내 통합(김용태, 2008:18-20; 김용태, 2006:108)이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을 통한 아브라함에 대한 기존의 신학적 연구와 상담학적 관점에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들을 고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한 관계 상호작용 후의 변화를 보웬의 탈삼각화 과정과 자기분화수준 중심으로 기술하고 비교함으로써 그 결과가 기독교 상담자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다.

II. 아브라함에 대한 신학적 · 상담학적 연구고찰

1.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기존의 신학적 연구

아브라함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약과 그의 믿음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하나님이 맺으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25장에 걸쳐 아브라함과 세 번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창 12장, 15장, 17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의 언약은²⁾ 아브람에게 주어진 명령과 약속이고, 15장은³⁾ 언약의 체결이며, 17장

1) “리치(E. Rich)는 성경의 진리는 어떻게든 코드화되어 있으며 이 코드는 유형화된 구조들의 순열과 조합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코드를 해독하는 방법은 일련의 변형과정들 속에 일관되게 존속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숨겨진 코드를 찾아내고 이의 해독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최은영, 2012:188-189).

은4) 체결한 언약의 재연과 확충이라고 말한다(Campbell, 1994:38). 언약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는 칼빈 사상에 나타난 아브라함 언약(양신혜, 2012; 박희석, 2002),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의 상관성(이한수, 1995), 신약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의 언약(조병수, 2007), 그리고 족장언약을 중심으로 본 아브라함 언약(우상혁, 2010)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 은혜와 그 백성의 충성스러운 신뢰와 사랑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들 간의 결속이며(Campbell, 1994:77-79),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순종이 담긴 관계의 상호성이며 이러한 상호성은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한다(Murray, 1994:99)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관계를 맺는 두 개체 간의 믿음과 순종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언약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이주하면서 쌓은 제단과의 관계(이사야, 2010),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인간의 믿음과 행위를 통한 하나님 언약 성취(박희석, 2002), 하나님의 사명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소명을 이루는 삶(하정택, 2011), 아브라함의 시련을 중심으로 본 아브라함의 신앙과 윤리(이승구, 2005),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한 아브라함 믿음의 메타 분석(김상래, 2008)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땅과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은 세상 속에서 매일을 살아내야 하는 불안하고 고단한 삶까지도 포함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초기에는 불안과 고민이 따라다니는 믿음이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종말론적인 믿음(히 11:8-10; 김상래, 2008)으로 성장함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이 처한 시점에 가장 적합한 맞춤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고 재연하며 확충해 가시고,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과정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적 발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뿐 아니라 상담학적으로 볼 때 심리적으로도 불안이 감소하고 자기분화 수준이 향상되는 치료적 관계의 발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찾아 본 언약을 통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아브라함의 깊은 불안과 그로 인한 불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 변해갔는지를 그려내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2)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새 출발이므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를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땅과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12:1-3).

3) 창세기 15장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두려워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상급이라고 하신 후, 동물을 쪼개어 놓고 준비된 제물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쌍방의 언약을 맺음으로 처음 약속을 다시 확증하신다(창15:9-21).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다는 의미를 지니는 언약 체결로,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약속을 완수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증거이다(송제근, 2003:77; 강성호, 2012:86-87).

4)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은혜로운 약속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종주권 언약”에 가까운, 즉 주인이 되는 왕은 종이 그의 주인에 대하여 행할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종에게 주권적으로 어떤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그 종이 다른 왕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왕은 그 종을 보호할 책임을 지니게 된다는 의미의 언약이다(Campbell, 1994:39; 김희권, 2002:135).

이야기에 대한 상담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 어떠한 연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2. 아브라함에 대한 기존의 상담학적 연구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학적 연구들은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브라함의 심리나 불안 또는 분화에 대한 상담학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지금까지의 기독교 상담학적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불안의 의미를 탐구하려는 시도(권길자·한재희, 2009)와 불안과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와 불안 극복을 위한 목회 상담적 접근법을 찾기 위한 연구(김영근, 2009) 등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보웬가족치료의 기독교 가족상담 혹은 목회상담으로의 적용을 위한 연구들이 (이미정, 2002; 이기훈, 2003; 최영랑, 2004; 김영덕, 2006; Matthews, 2005) 최근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앙의 발달단계와 자기분화이론의 관계를 보기 위한 연구(공하경, 2004)와 정서체계의 다세대 전수과정에 관한 연구(오국현, 2007)가 보웬의 이론을 적용하여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자기분화와 영적인 성숙 혹은 신앙의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기분화 수준과 영적성숙과는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음이 증명된 바 있다(공하경, 2004; 신경화 외, 2011; Majerus and Sandage, 2010). 또한 보웬가족치료와 영성에 대한 연구(Heiden Rootes et. al., 2010), 보웬가족치료를 신학적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David, 1979) 등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의 심리와 관련된 연구로는 Gustav Dreifuss와 Judith Riem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분석심리학적으로 이해한 연구(김명현, 2011)와 신학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품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정석규, 2012)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보웬가족치료로 족장들의 가족을 분석하거나 가계도분석을 통해 기독교 상담적인 관점을 분석해 보려는 연구들도 있다(김수영, 2002; 김기돈, 2002; 이동순, 2004). 특히 조난숙 외(2010)의 연구는 아브라함의 불안의 원인과 그 결과로 드러난 가족 내 갈등 및 부적응적인 행동, 그리고 다세대 전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아브라함의 분화수준이 변화했는지를 보웬가족치료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그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 지니는 의미와 영향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분화수준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즉,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내포하고 있는 치료적 의미와 과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III. 보웬가족치료의 주요개념과 아브람과 사래의 자기분화수준

1. 보웬가족치료의 주요개념

보웬가족치료 이론은 가족을 그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시스템으로 인식한다. 이 이론에서 자기분화와 만성불안은 중요한 개념들인데, 자기분화는 한 사람이 자신의 정서를 지적 체계를 통해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의미하고, 만성불안은 “가상적 또는 실제적 위협”에 의한 불안이 지속되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을 때 학습되는 정서로 정의된다(Papero, 2012:93-97; Kerr and Bowen, 2005:143-146). 보웬가족

치료 이론은 개인이 가족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잘 정의된 원리들에 따라 얼마나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로 분화수준을 측정하며(Papero, 2012:96-97), 분화 수준의 정도는 가족 간의 감정의 용해의 정도와 개인의 목표 지향활동 수준으로 알아 볼 수 있다(김용태, 2000:335-336).

자기분화수준이 낮고 만성불안의 수준을 가진 부부관계에서 생기는 정서적 압력들은 부부간의 정서적 단절과 갈등, 자녀에게로 문제 전이, 그리고 배우자가 과소 혹은 과대하게 기능하는 역기능의 핵가족 정서과정을 만들고,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가 깊어지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 안에 제 삼자를 끌어들이는 삼각관계를 형성한다(Papero, 2012:103-112; Kerr and Bowen, 2005:201-208). 보웬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들은 비슷한 자기분화수준을 갖고 있고, 부부관계에서 각 배우자의 “정서적 자기를 ‘우리’라는 공통의 자기로 함께 용해시킨” 수준을 형성한다(Papero, 2012:102).

또한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지식과 믿음으로 만들어진 가짜 자기(pseudo-self)로 인해 역기능적인 언행을 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Kerr and Bowen, 2005:131). 반면 분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진짜 자기(solid self)가 많아진다. 진짜 자기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변화되지 않는 특성으로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특성이다(김용태, 2000:332, 335).

분화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김용태, 2000:124-128; 양희숙, 2010:31-32).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준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분화수준이 낮으면 첫째, 만성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다. 둘째, 지적체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충동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감정반사행동을 주로 한다. 셋째, 자기감의 결여로, 자기가 발달하지 않았거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나 신념의지 등이 약해서 목표지향적 활동을 잘 하지 못한다. 넷째, 개별성과 연합성에 대한 유연성이 결여 되어 있어서, 가족 혹은 집단의 정서체계에 용해되어 있어 삼각관계를 형성하거나 정서적 단절을 한다.

보웬가족치료의 치료목표는 분화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그 이유는 불안을 통제하고 다루는 방법을 알면 분화수준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게 되어 제 삼자를 관계에 끌어들이지 않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김용태, 2000:356). 자아 분화수준과 삼각관계 형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치료자는 분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족체계 안에서 역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삼각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에 개입한다.

2. 아브람과 사래⁵⁾의 자기분화수준

아브람과 사래의 분화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경험하고 있던 불안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대 근동 지방의 족장사회에서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자유롭게 여러 민족들이 왕래하기도 하나 때론 군사적 개입까지 해야 할 상황들도 있었기에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 그리고 자손이 있어야 가족의 유산을 물려주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므로 자손은 매우 중요했다(Motyer et al. ed., 1994:44; Wood, 1985:26). 아브람은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지만, 불임인 사래로부터는 자식을 얻지 못할 것이

5) 아브람과 사래 또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표기하는 것은 중요한 지표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름을 정체성 이자 소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치료적 개입의 방식 중 하나로 본다.

라 생각했기에 조카 롯을 양자로 삼았다. 고향을 떠난 아브람은 안전하게 머물 자신 소유의 땅도 없었고, “생명과 종족 보존 여부”(조난숙 외, 2010:305)에 대해서 매우 불안했다고 볼 수 있다(Baldwin, 1986:36-37; Motyer et. al., 1994:108).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브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 땅을 떠난 행위는 아브람의 불신앙(이사야, 2010:117-118)이자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낮은 분화수준임을 의미한다.

창세기 16장 1-16절의 사건은 아브람과 사래가 불안으로 인해 갈등을 야기 하는 상황을 보여주며, 낮은 분화수준을 나타낸다. 본문의 시점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창 12:7),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창 16:3) 이들의 상황은 더욱 위기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래가 여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고자 함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한상인, 2004:345-346). 그러나 이런 행동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잇은 행동이다. 즉, 아브람은 불안으로 인해 복의 근원이자 큰 민족을 이룰 자로서의(창12:1-3, 15:1-5)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포기하고 아내의 감정에 용해된 감정반사행동을 한다. 만약 가족 중 한 사람의 불안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증상이 나타나면, 처음 불안했던 사람의 불안은 감소되고 증상을 갖게 된 사람을 돌보게 된다(Kerr and Bowen, 2005:163). 이것이 감정의 용해이다. 본 연구자들은 보웬의 이론대로 아브람과 사래 부부의 분화수준을 비슷하다고 가정한다. 이는 그들이 부부였을 뿐 아니라 같은 가족 배경을 가진 이복 남매(Wenham, 1987:273)이기 때문이다. 아브람은 사래의 말에 마치 아담이 하와가 준 과실을 그대로 받아먹은 순응적 행동을 한다(Wenham, 2001:72). 이는 문제를 회피하고 불편함에 반응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의 출생은 사래의 불안이 아브람에게 전가되어 나타난 결과이자(창 16:2), 아브람이 가정의 결정권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했다기보다 자기감이 결여되고 확신이 부족하여 아내의 감정에 용해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아브람과 사래의 이런 결정은 자기분화수준이 낮고 만성불안의 수준을 가진 부부관계에서 생기는 정서적 압력으로 인한 부부간의 정서적 단절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신뢰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행동은(창 12:10-20) 사래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자신을 진정 아내로 여기는가하는 의문이 들게 했다. 사래는 자신의 아내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남편 아브라함의 후사를 여종 하갈을 통해 생산하려는 계획으로 결국 하갈을 끌어들여 삼각관계 구도를 만든다. 사래는 아브람과 하갈에게 명령하여(Wenham, 2001:70) 그들 사이에 가족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고, 자신의 여종을 대리모로 하여 얻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여기고 그 아이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려한다. 즉 사래는 여종 하갈을 끌어들여 그와 용해됨으로 불안을 해소하려 했다(창 16:1-3).

사래는 불안을 잠시만 낮출 수 있었다. 하갈이 임신 후 사래를 임신여짐으로, 사라는 하갈과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에 분노를 드러내며 남편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한다(창 16:4-8). 사래는 하갈과의 갈등에 아브람을 제 삼자로 끌어들인다. 아브람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저 달래려고만 하는 감정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사래와 용해되어 삼각관계를 형성한다(창 16:4-6). 이런 상황에서 아브람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무책임함

6) 창세기 16:2 의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의 히브리 본문을 직역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세위질까 하노라” 이다. 히브리어에서 <세운다>는 관념과 <가족을 이룩한다>는 관념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Leale, 1984:675).

을 보여주는데 이것 역시 미분화됨을 나타낸다. 여기서 드러난 사래의 통제와 분노와 비난 그리고 책임 전가 등의 감정 반응과 학대라는 역기능적인 행동 또한 미분화를 나타내는 분명한 지표다(Kerr and Bowen, 2005:149). 그 후,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난 후,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래와 이삭,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삼각관계를 한 번 더 만든다. 사래와 아브라함은 다시 용해됨으로 안정을 찾으려 했다(창 21:9-11). 조난숙 외(2010)의 연구에서는 사래가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함으로 사래가 하갈과 용해됨은 삼각관계 형성으로 보지 않고, 하갈의 임신 후부터 두 번의 삼각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지만 본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불임으로 인한 사래의 불안은 연쇄적으로 세 차례의 삼각관계를 만들었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화된 사람과 미분화된 사람의 차이는 스트레스 상황 즉 불안을 유발시키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다(Murdock and Gore, 2004:319). 아브라함과 사래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에 용해되어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낮은 분화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불안에 의해 감정체계를 따라 사는 모습이자 부부 간에 감정적인 용해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므로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감정 반사행동을 하는 분화수준을 보여준다.

III. 하나님의 상호작용과 아브라함과 사래의 자기분화수준의 변화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상호작용은 아브라함과 사래의 자기분화수준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웬 이론에 따르면 만약 한 가족원이라도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의 기본분화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개인적 만성불안수준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체계 내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체계의 만성불안수준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Kerr and Bowen, 2005:160). 즉, 하나님은 자기분화수준이 완벽한 인격체이므로 하나님과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상호관계는 치료적인 개입임을 의미한다. 분화수준이 낮았던 아브라함과 사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상호작용한다. 아브라함은 인생 말기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 늙은 종에게 자신의 생식기를 잡게 하고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야 하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창 24:2-5). 이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행하는 목표지향적인 모습으로서 아브라함이 불안하여 롯이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모습과는 대조된다(창 24:7).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가 지향해야 할 목표 즉 구속사의 저변에 흐르는 열국의 아비로서의 소명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목표지향 활동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래가 하나님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아브라함과 사래의 분화 수준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1. 치료적 삼각관계 상호작용과 지적체계 활용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창15:6) 이전의 일반적인 약속과 명령(창 12장)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쌍방 언약 체결이라는 발전된 관계로 이어

진다. 하나님과 쌍방 언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브람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즉, 어느 정도 목표지향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상급이며 방패이심을 선언하시고(15:1), 아브람은 자식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과 화”(Motyer et al., 2005:111)를 드러내며 하소연을 한다(15:2-3). 아브람이 비록 이전과 달리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기는 하지만, 이는 아들을 주시지 않음에 대한 표현이자 하나님을 비난하는 감정반사 행동이다.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타인 혹은 자신을 비난하며, 이러한 자기 또는 타인을 비난하는 과정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 치료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Kerr and Bowen, 2005:311-312). 그러나 이후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의 감정에 용해되지 않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자, 아브람은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한다. 성경본문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창 15:6)” 라는 기록은 아브람이 자신에게로 초점을 돌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됨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개입이 치료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상호작용은 아브람으로 하여금 좀 더 자기감을 갖게 하여 “내가” 라는 자기를 주어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는 질문하게 하는 지적반응을 돕는다. 아브람이 기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 사래를 누이로 속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큰 민족을 이루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했던 행동과 비교하면 여기서는 아브람이 지적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기감이 다소 늘어난 모습이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에서 나타난 아브람과 사래, 그리고 하갈이 형성한 삼각관계의 미분화된 모습은 분화수준의 향상이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아브람이 미분화된 태도로 아내의 감정에 용해되어 가장과 큰 민족을 이룰 자로서의 다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아브람이 아직도 낮은 분화수준에 머물러 있어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하지 못함이다. 대부분 불안으로 인해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두 사람간의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두 사람의 긴장 관계에 제 삼자를 관여시킴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 이러한 삼각관계 구조는 제 삼자에게서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보상을 얻으려 하는 것이기에 역기능적일지라도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래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하갈과의 상호작용이다. 만약 한 가족원이라도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의 기본분화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개인적 만성불안수준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체계 내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체계의 만성불안수준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는(Kerr and Bowen, 2005:160) 보웬 이론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개입하신다.

본 연구자들이 창세기16장에서 주목한 점은 아브람과 사래 그리고 하갈의 삼각관계를 탈삼각화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료적 삼각관계를 형성함이다. 보통 삼각관계는 이자 관계에서 불안하고 불편한 사람이 제 삼자를 끌어들인다. 하갈은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데, 하나님은 세 사람 중 가장 약자인 하갈에게 직접 찾아오신다. 뿐만 아니라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 삼자가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편을 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갈의 불안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름을 부르시고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심으로 하갈의 과도한 감정과 불안을 줄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갈과 상호작용하신다. 하갈은 지금까지 사래의 여종으로만 불려 졌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여주인 사

래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창 16:9)고 하시면서 하갈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거듭 재확인시키시고 자신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하신다. 이는 보웬가족치료에서 치료자가 삼각관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상호작용과는 다른 종류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삼각관계 내의 움직임의 흐름을 확인하여 그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모습과 같다(Guerin et al., 1996; 김용태, 2000:360).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은 하갈과 사래와 치료적 삼각관계를 형성함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명령은 매정한 명령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의 이스마엘이란 아들의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과 유목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창 16:7-16; 이관직, 2000). 이는 자유를 얻기를 소망했던 하갈에게는 사래에게 향했던 삼각관계에서의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로가 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공감적 위로와 소망은 하갈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긴장이 이완되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이는 감정반사행동을 줄이고, 자신에게 초점을 둘 수 있는 지적체계를 활성화시킨다. 이로 하갈은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게 됨으로 삼각관계의 용해된 상호작용이 느슨해졌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음은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람과 18장에서는 사래와 상호작용하신다. 이 시점은 창세기 16장의 사건으로부터 13년이 흐른 뒤다.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치료적 개입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언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17:1-2, 4-8, 9-14, 15-16, 19-21). 그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은 1) 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히 하고, 2) 그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래로서의 정체감을 알려주시고, 3) 그를 위해 그들이 할례로 구별되어야 함과, 4) 사래가 이삭을 낳음으로 언약이 세워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는 보웬가족치료 기법 중의 하나인 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보웬가족치료에서 교육은 가족들의 분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적체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치료방법이다. 그 이유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고, 이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참조체계를 활용하여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용태, 2000:361). 사래의 이름을 사래로 바꾸어주심은 그녀에게 새로운 현실이 있음을 의미하는 데(Freedman, 1992), 그것은 이제 불임의 사래가 사래가 되어 자신이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옮겨졌음을 분명히 알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래에게 새 이름을 주심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참조체계의 확립으로 간주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소명을 이루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8장에서 사래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심같이 분명하게 약속을 일러주시고, 여호와가 누구이심을 알려주심과 함께 사래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도록 하신다(창 18:1-15).

2. 아브라함과 사래의 목표지향적 활동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표지향 활동을 하게 된 것은 21장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아브람과 사래가 새 이름을 얻은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조체계의 변화이자 하나님과의 상호관계에서 있어서 새로운 도약이지만, 그들의 실제적이고 확실한 변화는 이삭의 출생 이후에 점진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삭의 출생

이전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 사례를 누이라 속인(창 12:10-20) 실수와 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기 때문이다(창 20장). 아브라함은 또 다시 불안함에 가장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언약의 말씀과 상호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실제로 얻고 난 후에야 만성적 불안이 해소되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음(조난숙 외, 2010:316)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기분화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오랜 시간 걸쳐 일어남과 이러한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상호작용 하심을 알 수 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모자, 그리고 하갈 모자가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다시 융해됨으로 안정을 찾으려 했다(창 21:9-21; 조난숙 외, 2010:3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내쫓으라고 요구하는 사라로 인해 깊이 근심하는 아브라함과 여상하게 상호작용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반복적으로 취하는 분명하지 않은 태도에도(창 15장-17장, 21장) 불구하고 비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치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은 김용태(2000:360)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람직한 치료적 관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고, 사라는 하갈을 통해 나온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창 21:8-10). 주석서들은 이스마엘의 이런 행동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으며 조롱의 내용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과 무시였다고 기록한다(Wenham, 2001:192-193; Leupold, 1987:522-523). 이스마엘의 조롱에 대한 사라의 반응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두 가지 견해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사라가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학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보지만(Maclaren et al., 1991b:184), 다른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요구를 따를 것을 명령하신 점과(창 21:12-13), 사도 바울의 해석을 근거로(갈 4:29), 사라의 행동이 약속의 아들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영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었다고 본다(Leupold, 1987:523; Anderson et. al., 2009:258). 보웬이론의 관점에서도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쫓으라는 사라의 주장이 감정반사 행동을 했다는 근거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내쫓다’라는 단어, ‘가라쉬 שָׁרַף’는 히브리 원어 상의 의미로는 이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로 단절을 의미하므로 냉정한 표현(Leupold, 1987:523)이기는 하지만, 창세기 16장에서 사라가 보여주는 아브람에게 행한 비난과 원망의 감정반사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기 위해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하갈은 물론 남편에게까지 명령하여 아브라함의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무시하던 사라였지만, 사라는 그 당시의 법률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며, 남편에게 해결을 요청한다(창 21:10; Anderson et. al., 2009:253). 가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사라는 이제 삼각관계를 시도하지도 않고, 감정반사 행동이 아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분화된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태도 또한 달라져 있다. 이스마엘이 86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자 14년 간 애지중지 양육해온 아들임을 감안할 때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은(창 21:11) 인간적으로 당연하다. 신학자들은 지속적으로 행해졌던 이스마엘의 이삭에 대한 조롱은 이를 묵과해 온 아브라함의 미온적인 태도라고 지적한다(Leupold, 1987:524; Wenham, 2001:200). 이는 보웬이론의 관점에서도 그가 가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회피하는 감정적으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분화 된 행동을 지속하고 있었음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이 용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내의 요구에 반응하는 이때의 방식은 창세기 16장과는 달라져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앞서 아내의 말을 이성적인 평가 없이 무작정 따르는 용해된 감정 반응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하고 실천하는 지적체계를 활용하는 모습(창 21:14)을 보여준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반사 행동을 하던 미분화된 태도에서 지적체계를 활용하여 이성적으로 반응한다. 하나님은 하갈을 내쫓으라고 요구하는 사라로 인해 깊이 근심하는 아브라함의 근심에 용해되지 않고 그와 상호작용하심으로써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을 상기하게 하고(창 21:12-13), 그의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 가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여 자신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지적반응을 하도록 돕는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야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가장으로서의 결단을 내리고 실행함으로(창 21:11-14) 한 가정의 가장과 더 나아가서는 열국의 아비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그의 리더십은 목표지향적 활동의 향상을 의미한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점진적으로 분화수준이 향상되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과도 용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내를 끌어들여 삼각관계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치료적 상호작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용해되려 하는 미분화된 행동을 버리게 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을 내재화하여 자신이 가야할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므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창22:1-12),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게 된다. 이는 분화수준이 높아져 확신을 가진 진짜 자기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성취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확신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약속을 향한 목표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 즉, 삼각관계가 와해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감정반사행동이 줄어들었고, 목표지향 활동은 향상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자기분화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V. 결론

기독교의 인간관은 전인적이다. 우리는 영, 혼, 육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것을 분리해서 보기보다 전체적으로 합한 전인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이 성경적이다(최은영, 출판준비 중).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이해한 영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왔음을 기존의 신학적 연구고찰을 통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측면뿐 아니라 그동안 간과해 왔던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성경이 실제로 묘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전인적 존재를 보웬가족치료 이론으로 조명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상호작용을 통해 아브라함은 언약을 확신해 가는 믿음의 과정 뿐 아니라 자기분화 수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첫째,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진 만성적 불안은 “자손과 땅”에 용해됨으로 나타난다. 둘째,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용해함으로 인해 그들은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 부부 사이에 제삼자 하갈을 끌어들임으로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안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보여주는 행동은 그들의 불안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지배했는지를 보여준다. 셋째, 하나님과의 치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기분화 수준은 아브람과 사래로 분리었을 때보다 향상되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감정반사 행동에서 벗어나 지적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내재화하면서 진짜 자기가 늘어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목표지향 활동을 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치료적 삼각관계형성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감정적 융해로 인해 형성하던 반복적 삼각관계를 해결했다.

본 연구 결과가 기독교 상담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개입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개입하심과 같이 우리들의 심리적 상태에 적합한 개입을 하심이다. 비록 개인이 부족하고 분화수준이 낮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한 상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의 분화수준에 맞게 상호작용하시고 이끄신다. 둘째, 이러한 과정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여정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자아분화 수준이 수십 년을 걸쳐 어렵게 향상되어감이다. 기독교 상담학 관점에서 불안은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인간들에게 내재되었다고 보기 때문에(권길자, 한재희, 2009; 김영근, 2009; 키에르케고르, 1999) 성화 과정에서 완전히 불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는 이 점은 보웬이 자기분화 수준의 향상과 만성 불안의 해소가 어렵다고 보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화수준의 향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가들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내담자들의 분화수준과 불안수준을 이해하고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는 방식은 보웬 이론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보았지만, 기독교 상담에서 신학과 상담학적 관점의 균형을 유지함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이론과 지식,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는 항상 존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역사 하심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 상담자들은 기억해야 함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 강성호 (2012).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
- 공하경 (2004). “자기분화에 따른 신앙의 발달단계에 관한연구 : Bowen의 자기분화이론과 Fowler의 신앙의 발달단계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권길자, 한재희 (2006). “불안을 호소하는 기독교인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6. 253-283.
- 김기돈 (2002). “보웬 이론을 통해 본 야곱 가족 분석 보웬 이론을 통해 본 야곱 가족 분석.”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김명현 (2011).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 Gustav Dreifuss와 Judith Riem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
- 김상래 (2008). “야훼의 땅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미 재해석.” 『구약 논단』. 14(4). 85-102.
- 김수영 (2002).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한 야곱 가족의 분석 : 보웬과 미누친의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근 (2009). “불안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와 목회상담적 접근”. 『성결심리상담』. 1. 9-32.
- 김영덕 (2006). “가족치료를 위한 목회상담에 관한 연구 : 보웬의 가족치료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 김용태 (2000).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 김용태 (2006).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서울: 학지사.
- 김용태 (2008). “기독교 상담의 통합에 관한 모델과 영역에 관한 개요.”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3-42.
- 김재구 (2009). “아담과 노아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성공.” 『구약 논단』, 15(1). 52-72.
- 김진규 (2012). “아브라함 복의 세 가지 구속사적 의미와 이의 현대 설교에의 적용.” 『개혁논총』. 9-39.
- 김회권 (2003).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어머니 사라.” 『기독교사상』. 132-142.
- 박희석 (2003). “칼빈과 언약신학.” 『총신대논총』. 60-86.
- 서우경 (2011). “위기상황 속 성서인물의 정신역동.”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5. 125-150.
- 송제근 (2003).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 서울: 두란노.
- 신경화, 조윤옥, 조성현 (2011). “신학생의 자기분화수준과 영적성숙과의 상관성연구.” 『상담학연구』. 12(3). 757-769.
- 양신혜 (2012). “칼빈의 언약 사상에 나타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34. 162-192.
- 양희숙 (2011). “삼각관계와 가족희생양의 통합적 가족치료 모델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오국현 (2007). “정서체계의 다세대 전수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우상혁 (2010). “약속과 제사의 만남: 족장 언약을 중심으로.” 신학지평. 23(1). 321-346.
- 이관직 (2012).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이기훈 (2003). “보웬(M. Bowen)의 가족치료이론의 목회상담에로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이동순 (2004). “구약시대 족장들의 가계도 분석을 통한 목회상담 연구 : 보웬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 이승구 (2005). “합리주의적 윤리와 신앙의 윤리의 관계: 두려움과 떨림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시련을

- 중심으로” 『단행본』 . 126-188.
- 이미정 (2002). “보웬(M.Bowen) 가족치료이론의 기독교 가족상담에로의 적용.” 석사학위논문. 서울여
자대학교.
- 이샤야 (2010). “이주와 제단쌓기를 통해 본 아브라함의 모습.” 『신학논단』 . 60. 114-134.
- 이한수 (1995).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상관성.” 『신학지남』 . 62(2). 71-103.
- 정석규 (2012).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품성의 변화.” 『한영논총』 특별호. 39-61.
- 조난숙, 송조흠, 한영혜, 최은영 (2010). “창세기 가족의 보웬 가족상담적 분석 및 성경적 함의. 『한
국기독교상담학회지』 . 11. 299-326.
- 조병수(2007). “신약성경에 나오는 구약성경의 언약들.” 『신학정론』 . 25(1). 83-103.
- 최영량 (2004). “청소년을 둔 가족치료를 위한 목회상담학적 접근 : Murray Bowen의 가족체계 이론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 최은영 (2012). “보웬의 자아분화와 룯기 신학.” 『목회와 상담』 . 19. 188-217.
- 최은영 (2013 출판 예정). 『기독교 상담학: 비평과 사례』 .
- 하경택 (2011). “아브라함의 소명(召命)과 이스라엘의 사명(使命): 창세기 11장 27절~12장 20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장신논단』 . 41. 35-62.
- 한상인 (2004).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의 사회 제도 비교.” 『구약 논단』 . 16. 317-357.
- Anderson, M., Gangel, K. O., Bramer, S. J. *Genesis*. 김진선 역 (2009). 『Main Idea로 푸는 창세
기』 . 서울: 디모데.
- Baldwin, J. G.,(1986). *The Message of Genesis 12-50*. 강성열, 김영호 역(1992). 『창세기』 . 서울:
IVP.
- Campbell, K. M., Murray, J., Payne, J. B. 오광만 역(1994). 『구속사와 은혜언약』 . 웨스트민스터.
- Leupold, H. C. (1987). *Barn's notes on the Old Testament commentary. Genesis. Vol. 2*. 최종태
역 (1993). 『반즈 신구약 성경주석. 창세기 下』 . 서울: 크리스찬서적.
- Motyer, J. A., Wenham, G. J., Carson, D. A., France, J. A., (1994). *New Bible Commentary: 21st Century*. 김순영, 김장복, 김재영, 성기문, 이철민, 임용섭, 황영철 역 (2005). 『IVP 성경주석
구약』 . 서울: IVP.
- Guerin, P.J., Fogarty, T.F., Hay, L.F., Kautto, J.G. (1996). *Working with Relationship Triangles: The One-Two-Three of Psychotherapy*, 최선령, 이인수 역(2006). 『가족치료 임상에서의 삼각관
계 활용』 . 서울: 시그마프레스.
- Kerr, M. E.,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남순현·전영주·황영훈 역(2005). 『보웬의 가족
치료이론』 . 서울:학지사.
- Kierkegaard, S. *Begrebet angst*. 임규정 역 (1999). 『불안의 개념』 . 서울: 한길사.
- Leale, T. H. (1984). *The preacher's Complete Homiletic Commentary: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III)*. 이기문역 (1984). 『베이커 성경주석. 2, 창세기(하)』 . 서울:기독교문
사.
- Leupold, H. C. (1987). *Barn's notes on the Old Testament commentary. Genesis. Vol. 2*. 최종태
역 (1993). 『반즈 신구약 성경주석. 창세기 下』 . 서울:크리스찬서적.
- Maclaren, A., Dods, M., Harris, R. (1991a). 『토브성경주석 창세기 I』 . 서울: 브니엘출판사.
- Maclaren, A., Dods, M., Harris, R. (1991b). 『토브성경주석 창세기 II』 . 서울:브니엘출판사.
- Papero, D. V. (1990). *Bowen Family Systems Theory*. 남순현 역. (2012). 『보웬가족치료를 위한
짧은 이론서』 . 서울:시그마프레스.
- Wenham, G. J. (1987). *Word Biblical Commentary: Gensis 16-50*. 윤상문, 황수철 역 (2001).

『WBC 창세기. 하』. 서울: 솔로몬.

Wood, L.(1985). *Survey of israel's History*. 김의원 역 (1985). 『이스라엘의 역사』. 기독교문서 선교회.

David, J. R. (1979). "The Theology of Murray Bowen or Marital Triangle." *Th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7(4). 259-262.

Freedman, D. N. (1992).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O-Sh*. New York: Doubleday.

Heiden Rootes, K. M., Jankowski, P. J., Sandage, S (2010). "Bowen Family Systems Theory and Spiritualit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iangulation and Religious Questing."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2(2). 89-101.

Holeman, V.T., Dean, J.B., DeShea, L., & Duba, J. D. (2011).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the Quest Construt forgiveness, Spiritual Perception, & Differentiation of Self."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9(1). 31-43.

Majerus, B. D. and Sandage, S. J. (2010). "Differentiation of Self and Christian Spiritual Maturity: Social Science and Theological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8(1). 41-51.

Matthews, L. E. (2005). "Bowen Family Systems Theory: A Resource for Pastoral Theologians." *Review and Expositor*. 102(3). 425-444.

Murdock, N. L. and Gore, P. A. Jr. (2004). "Stress, Coping and Differentiation of Self: A Test of Bowen Theory."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6(3). 319-335.

Wenham, G. J. (1987). *Word Biblical Commentary: Genesis 1-15*. Waco: Word Books Publisher.